

제2회 '인문도시' 세미나

인문도시와 시민역량

2025년 11월 15일(토) 14:00~16:30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동시통역실

 인천대학교문화대학원  인문도시연구소

후원: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총동문회

제2회 인문도시 세미나 인문도시와 시민역량

문화도시의 실현은 시민들의 문화역량에 달려 있다.
시민주체의 형성과 참여적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터 벤야민이 구성한 주체인 '산책자'(Flâneur)의 도시 인식 방법론의 의미를
토론한다.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30~15:00	등록
14:00~15:30	주제발제 · 문화교육과 참여적 문화 역량 (손동혁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 인문도시의 주체와 시선-벤야민의 산책자 (김창수 인문도시연구소장, 전 인천연구원 부원장)
15:30~16:00	토론 최영화(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사진작가, 상명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외래교수)
16:00~16: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사회: 김종서(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과장 불어불문학과 교수)

발제: 손동혁(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김창수 (인문도시연구소 소장, 전 인천연구원 부원장)

토론: 최영화(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사진작가, 상명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외래교수)

문화교육과 참여적 문화 역량

손동혁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1. 문화시민, 문화교육, 참여적 문화 역량

21세기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은 문화이다. 문화는 이제 예술 향유나 여가 소비를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문화는 사회의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도모하며, 경제적 전환과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다양한 문화중심 도시 모델(culture-oriented urban models)을 실험하는 흐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창조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와 문화기반 도시재생(Culture-led Urban Regeneration)의 사례는 문화가 사회적 회복과 경제적 재생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Landry, 2000; Bianchini, 1993).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그의 저서 『창조 도시(The Creative City)』에서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문화와 창의성을 제시하며, 문화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자원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프랑코 비앙키니(Franco Bianchini) 등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쇠퇴한 공업 도시들이 문화를 통해 재생한 사례를 분석하며, 문화기반 도시재생 담론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와 궤를 같이하며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문화도시(cultural city) 담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제도는 문화를 도시정책의 중심에 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동 법률 제1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 혁신 제고’를 목표로 하며,¹⁾ 추진체계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²⁾ 즉, 정책의 수립·시행·평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8), 3쪽.

2)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가 전 과정에 시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다.³⁾

그러나 실제 문화도시 정책의 운영 과정은 이러한 이상과 일정한 괴리를 보인다. 현재의 문화도시 정책은 종종 ‘사업화된 문화’, ‘행정 중심 문화’로 축소되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 브랜드 강화, 콘텐츠 생산 등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실천과 공동체 기반의 문화 형성을 주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문화도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의 문화적 삶과 공동체적 실천을 중심에 둔 공적 공간으로 진화하는 데 본질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 중앙-지방 간 권한의 불균형, 민간 주체의 실질적 배제 등은 문화도시가 지향해야 할 문화민주주의와 시민 중심 문화 자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손예령, 2019).⁴⁾ 다시 말해, 문화가 도시 발전의 중심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문화가 행정의 수단화, 정책의 도구화, 성과주의적 기획 논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⁵⁾ 이는 문화도시의 본래 취지인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 생활 기반의 문화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와 괴리를 낳으며 문화정책의 형식화, 시민 배제,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문화도시를 시민 중심의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문화시민(cultural citizen)의 형성을 제기하게 한다. 문화도시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기반 시설의 양적 확장이나 이벤트성 사업을 넘어서 시민이 문화적 실천의 주체로 기능하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시민의 형성은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 축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게 된다. 문화시민은 문화 향유자나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고 공유하며, 타자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소통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Stevenson, 2003).⁶⁾ 이들은 자율성과 비판성을 갖춘 주체로서 문화적 감수성, 해석력, 참여 역량을 통해 도시 내 문화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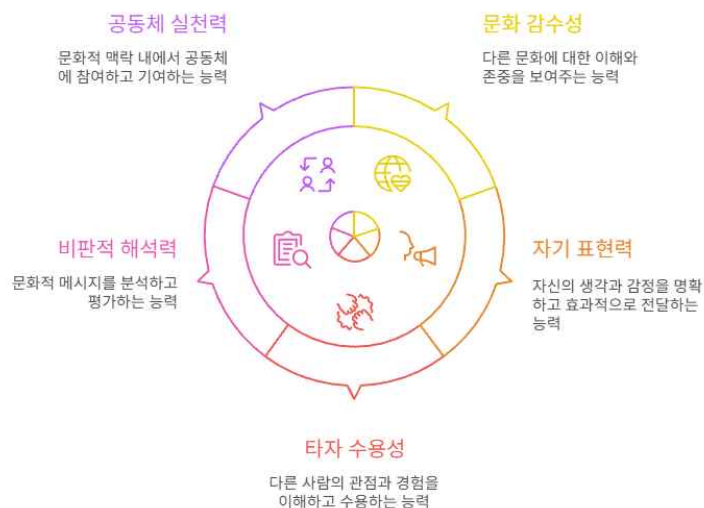
2016), 136쪽.

- 3) 법정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요건 중에 하나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는 시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 4) 국내 다수의 연구는 문화도시 사업이 단기적 성과 창출에 매몰되어 관 주도의 대규모 이벤트나 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위축시키고, 문화정책을 행정의 하위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 5) ‘문화의 도구화(instrumentalization of culture)’는 문화가 경제 성장, 도시 마케팅, 사회 통합 등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 본연의 가치(심미적, 성찰적,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문화정책을 성과주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6) ‘문화시민’ 또는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은 소속된 공동체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문화적인 실천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며, 타자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 자질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정치적 권리를 넘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참여와 표현의 권리를 포함하는 확장된 시민성의 개념이다.
- 7) ‘문화적 공공성(cultural public sphere)’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 상호 소통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공적 논의의 장

그러나 문화시민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문화 실천 역량은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기회, 문화 접근권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르디외(Bourdieu, 1979)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은 이러한 문화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⁸⁾ 그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체화되는 문화적 취향과 능력의 차이가 사회적 위계 구조를 강화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문화적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문화도시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정책의 형식화를 초래하며, 문화도시의 지속성과 포용성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문화시민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이 문화적 표현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문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1] 참여적 문화역량 모델

참여적 문화 역량 모델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은 문화시민 형성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된다. 문화교육은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이나 향유 중심의 문화교육을 넘어서 시민이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며,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참여적 문화 역량(participatory cultural competence)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Jenkins et al., 2009).⁹⁾ 참여적 문화 역량은 문화 감수성(cultural sensibility),

을 의미한다. 문화시민은 이러한 문화적 공공성을 활성화하고 재구성하는 핵심 행위자이다.
 8)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체화되는 문화적 취향과 능력, 즉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차이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 접근성과 표현력의 격차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9) ‘참여적 문화 역량’은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 등이 논의한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에서의 시민 역량과 관련이 있다. 참여문화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창작하고 공유하며 사회적인 담론에 참여하는 문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선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해석력(interpretation), 실천력(action competence), 공동체적 소통 능력(communal communication competence)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으로 문화도시의 질적 심화와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다. 이러한 역량이 시민 안에 내면화될 때, 문화도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문화정책의 수동적 수혜자를 능동적 실천자로 전환시키는 인문적·사회적 기반이 된다.

2. 문화교육이 참여적 문화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건인 시민이 자율적 주체로서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 공존하며 민주적 소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문화 역량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교육이 이러한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양적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참여 경험이 시민의 문화적 역량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2025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23부의 유효 응답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여성 64%, 남성 36%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29%)와 50대(24%)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업군은 사무 종사자(37%)와 전문직(36%)이 주를 이뤘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 동기’, ‘문화적 감수성’, ‘자기 표현력’, ‘공동체 인식’, ‘타자 수용성’, ‘비판적 사고 역량’, ‘기타(참여한 문화교육 유형, 교육 운영 기관, 교육 만족도, 개선 필요 영역, 향후 참여 희망 분야)’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일부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교육 참여가 시민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요인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질적 조사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인터뷰는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문화교육 기획자 5명, 문화도시 활동가 5명 등 총 10명으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수집·분석하였다. 인터뷰는 문화교육 참여의 동기, 만족도 및 경험, 사회적 영향, 그리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은 주제별 범주화를 통해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수치적 경향을 뒷받침하거나, 그 이면에 내재한 의미와 맥락을 해석할 수 있었다.

비판적인 해석 능력과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1) 양적 조사 결과 분석

1) 인구 사회학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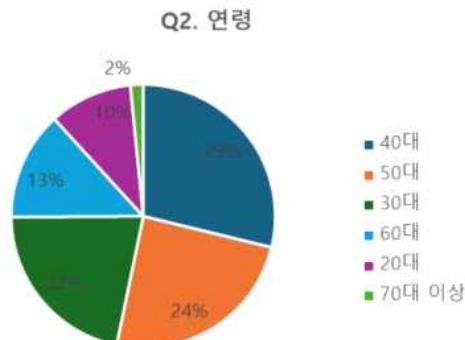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23명 중 여성 참여자의 비율은 64%로, 남성 참여자 36%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뚜렷한 성별 불균형은 현재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홍보 방식이 여성에게 더 강하게 소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교육 접근성에서의 젠더 격차와 여가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성별 역할 기대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문화교육 참여자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29%), 50대(24%), 30대(22%)가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하며,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중심 세대가 문화교육의 핵심 참여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대의 참여율은 10.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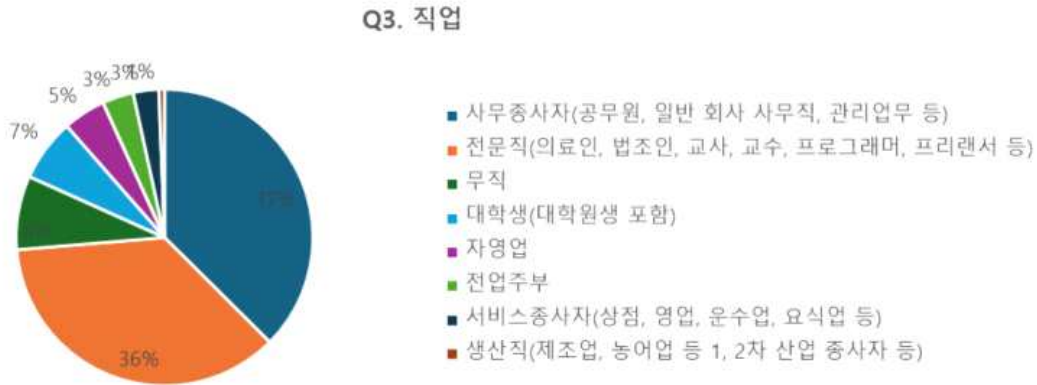
[그림 3] 문화교육 참여자의 연령



직업별 구성에서는 특정 계층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무 종사자(공무원, 일반 회사 사무직 등)가 37%, 전문직(의료인, 법조인, 교수, 프로그래머 등)이 36%로, 두 집단을 합한 비중이 73%에 달했다. 이는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문화 교육

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문화교육 참여자의 직업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쏠림 현상은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문화시민의 보편적인 형성과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에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문화도시 정책이 문화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문화교육에의 참여가 특정 연령층과 직업군에 집중되는 경향을 해소할 수 있는 비(非)참여 계층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교육의 내용과 접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과 상대적으로 문화자본이 부족한 계층의 참여적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당위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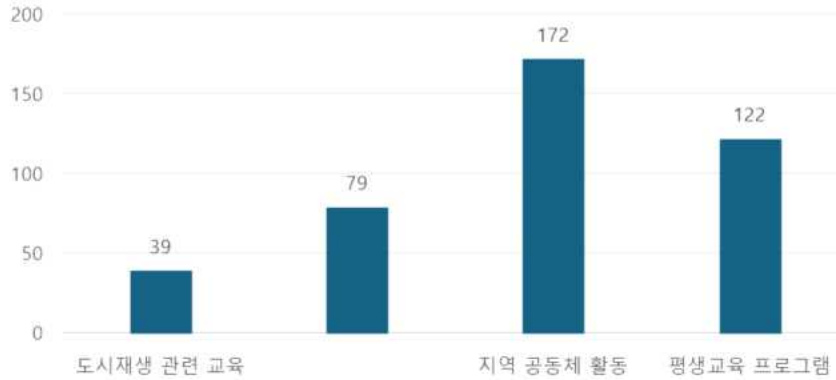
2) 문화교육 참여 경험 및 유형

응답자의 81%는 지난 5년 이내에 문화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였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동’(42%)과 ‘평생교육 프로그램’(30%)이 가장 보편적인 참여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19%)과 ‘도시재생 관련 교육’(9%)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았다. 이는 문화교육을 ‘취미나 교양 중심’에서 ‘사회적 실천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적 심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기후 위기 등의 이슈와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비교적 최근에 활발해진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교육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참여 형태로 활성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그림 5] 참여한 문화교육 유형

G1. 참여한 문화교육 유형 (최대 2개 선택)



문화교육 운영 주체별로는 ‘공공기관(지자체, 문화재단 등)’이 5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민간기관(문화단체, NGO 등)’(30%)과 ‘학교 또는 대학’(1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문화교육 생태계가 공공기관 주도, 특히 지원사업과 같은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공 주도의 장점은 보편적인 참여자의 접근성 확대에 있지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공공기관 정책 변동성에 따른 취약성이라는 단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 문화교육을 참여한 기관

G2. 문화교육을 참여한 기관 (최대 2개 선택)



3) 문화교육 참여 동기

문화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동기로 문을 두드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참여 동기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사회적 관심 때문에 문화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A1)”의 평균은 5.55, “문화교육은 내가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A2)”의 평균은 5.61,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A3)”의 평균은 5.63으로 모든 문항이 척도 중앙값(4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교육 참여자 다수가 지식 습득이나 취미 생활을 넘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결과는 문화교육 참여자들이 지식 습득이나 취미, 여가 소비의 차원을 넘어,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며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능동적인 도구로 문화교육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의식이 문화교육에 참여하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교육이 문화시민의 정치적 주체성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 문화교육 참여 동기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A1. 나는 사회적 관심 때문에 문화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262	1	7	5.55	1.461
A2. 문화교육은 내가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262	1	7	5.61	1.302
A3.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262	1	7	5.63	1.276

4) 문화교육의 다차원적 영향 평가

문화교육은 참여자의 사회·공동체 의식, 문화적 역량, 창의적 표현력, 비판적 시민성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교육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며, 이웃과 함께 행동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

공동체 인식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교육 참여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D1)”의 평균이 5.73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D3)” 역시 평균 5.7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활동을 기획하거나 실천한 경험이 있다(D2)”의 평균은 5.31로 다소 낮아,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인 실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교육이 개인을 고립된 존재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연결시키고, 수동적인 주민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통합의 기제임을 나타낸다.

[표 2] 문화교육과 공동체 인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D1. 문화교육 참여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262	2	7	5.73	1.068
D2. 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활동을 기획하거나 실천한 경험이 있다.	262	1	7	5.31	1.785
D3.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62	1	7	5.72	1.204

② 문화적 감수성 향상

문화교육 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증가하며, 예술이나 문화적 표현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등 문화적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교육 참여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B1)”의 평균은 5.61,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증가했다(B2)”의 평균은 5.96, “예술이나 문화적 표현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B3)”의 평균은 5.92로 나타났다. 세 문항 모두 평균이 5.6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 응답자들이 문화 교육 경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이 증진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문화교육과 문화적 감수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B1. 문화교육 참여 이후에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262	1	7	5.61	1.172
B2.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증가했다.	262	3	7	5.96	.972
B3. 예술이나 문화적 표현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해석할	262	3	7	5.92	1.025

수 있게 되었다.					
유효한 N(목록별)	262				

③ 상호문화 역량 증진

다양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교육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타자 수용성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연령,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교육에 참여하며 상호 존중을 배웠다(E1)”의 평균은 6.01,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E2)”는 평균 6.09, “문화적 차이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E3)”는 평균 6.22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이 평균 6점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문화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화교육이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완화하고, 더 관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4] 문화교육과 타자 수용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E1. 다양한 연령,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교육에 참여하며 상호 존중을 배웠다.	262	3	7	6.01	.928
E2.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262	3	7	6.09	.899
E3. 문화적 차이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262	3	7	6.22	.872

④ 창의적 표현력 및 자신감 향상

문화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한다.

자기 표현력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문화적 방식(글,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C1)”의 평균은 5.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공개적인 자리(포럼, 행사 등)에서 나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C3)”도 평균 5.08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문화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나만의 창작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C2)”는 평균 4.82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교육 경험이 전반적으로 자기표현 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나, 실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표 5] 문화교육과 자기 표현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C1. 나의 생각과 감정을 문화적 방식(글,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262	1	7	5.51	1.283
C2. 문화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나만의 창작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	262	1	7	4.82	1.795
C3. 공개적인 자리(포럼, 행사 등)에서 나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262	1	7	5.08	1.517

⑤ 비판적 시민성 함양

문화교육은 참여자들이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며,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비판적 사고 역량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태도가 생겼다(F1)”의 평균은 5.61, “문화정책이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되었다(F2)”는 평균 5.31, “문화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일상이나 사회참여에 적용하고자 한다(F3)”는 평균 5.71, “문화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자유, 평등, 참여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F4)”는 평균 5.63으로 나타났다.

특히 F2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평균 5.6 이상을 보여, 응답자들이 문화 교육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와 민주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질문으로 이어지는 수준(F2)은 상대적으로 낮아, 비판적 사고의 실제적 적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문화교육과 비판적 사고 역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F1.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태도가 생겼다.	262	2	7	5.61	1.101
F2. 문화정책이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262	2	7	5.31	1.289

F3. 문화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일상이나 사회참여에 적용하고자 한다.	262	2	7	5.71	1.094
F4. 문화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자유, 평등, 참여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262	1	7	5.63	1.147

5)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운영 평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과 함께, 참여자들이 지적한 구체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

참여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5.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척도의 중앙값인 4점을 상회하는 평균 값은 응답자들이 대체로 참여한 교육 경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의미한다. 특히 표준편차가 1미만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만족도 응답이 비교적 일관되게 높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참여자들의 기대를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강사진의 역량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문화교육 참여 만족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G3. 귀하가 참여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62	2	7	5.76	.982

그러나 이렇게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이 문화교육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복수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접근성(비용, 시간, 거리 등)’이 154명(38.5%)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 방식(홍보, 일정, 장소 등)’이 119명(29.8%), ‘강사진 전문성’이 68명(17.0%), ‘프로그램 내용’이 59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문화교육 개선 필요 사항

G4. 교육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선택)	
	퍼센트
N	

강사진 전문성	68	17.0
운영 방식(홍보, 일정, 장소 등)	119	29.8
참여 접근성(비용, 시간, 거리 등)	154	38.5
프로그램 내용	59	14.8
유효한 N(목록별)	400	100.0

첫째, 비용, 시간, 거리 등 참여의 근본적인 장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는 특정 직업군 및 연령층의 참여 저조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로, 문화교육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보여준다.

둘째, 홍보, 일정, 장소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뒤를 이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운영된다면 그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문화교육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강사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넷째,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는 가장 낮게 나타나, 현재 콘텐츠의 질이 비교적 우수함을 확인시켜 준다.

종합하면 문화교육의 내용적 측면이나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실제 참여 과정에서의 운영 관리와 물리적 접근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문화 교육 정책은 프로그램 운영 체계 개선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6) 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

참여자들이 향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문화교육 분야를 분석하고, 앞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향후 참여 희망 분야: 공동체와 인문학에 대한 높은 수요

응답자들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교육 분야를 복수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문화 및 공동체 활동'이 119명(26.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역사·인문학 관련 교육' 103명(22.8%), '디지털·미디어 문화' 98명(21.7%),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기후 위기 등)' 82명(18.1%), '도시재생·생활 문화프로그램' 50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 및 공동체 활동'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분야로,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웃과 교류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한다. '역사·인문학 관련 교육'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성찰과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디지털·미디어 문화'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와 활용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수요를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문화교육 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재생·생활 문화프로그램’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9]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교육 분야

G5.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선택)		
	N	퍼센트
도시재생·생활문화 프로그램	50	11.1
디지털·미디어 문화	98	21.7
역사·인문학 관련 교육	103	22.8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기후위기 등)	82	18.1
지역문화 및 공동체 활동	119	26.3
유효한 N(목록별)	452	100.0

이러한 결과는 주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문화교육과 인문학·디지털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도시재생·생활 문화 영역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문화교육 기획 시 수요가 높은 분야와 수요가 낮은 분야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잠재적 참여 저해 요인 분석 및 극복 과제

앞서 확인된 개선 요구사항은 신규 참여자의 유입을 막는 핵심적인 장벽 요인과 동일하다.

첫째,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가진 직장인,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 등에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참여를 가로막는 문턱으로 작용한다.

둘째, 홍보 방식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잠재적 참여자들을 발굴하지 못하게 만든다.

셋째, 성별, 연령, 직업별 참여 격차는 현재의 프로그램 주제가 특정 집단의 관심사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장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문화교육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7) 종합 결론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문화교육은 뚜렷한 성과와 명백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성과 측면에서, 문화교육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30~5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을 핵심 참여층으로 하여, 이들의 시민적 역량과 문화적 포용성을 함양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문화교육을 통해 사회와 공동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얻었다. 또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공감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개인적 성장을 경험했다. 이는 문화교육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사회적 기제임을 입증한다.

과제 측면에서, 문화교육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다. 20대 청년층, 남성, 그리고 생산직·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참여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문화교육이 보편적 시민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의 가장 큰 장벽으로 접근성과 운영 방식의 문제가 지적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잠재적 참여자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화교육은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참여의 넓이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의 질적 성과를 유지·발전시키면서도, 프로그램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문화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화교육이 특정 계층의 성과를 넘어 보편적인 시민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운영 모델에서 벗어나 포용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문화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포용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공간-타겟 재설계' 전략이다. 현재 문화교육은 특정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참여율이 낮은 취약 계층의 특성과 제약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 전략을 도입하여 타겟을 다각화하고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시간적인 제약(직장인)과 지리적인 제약(원거리)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표준화하고, 유연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직·생산직 근로자들의 불규칙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주말 집중 과정, 단기 워크숍,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좌 등 시공간적인 제약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운영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업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근무 환경 및 시간을 고려한 찾아가는 문화교육이나 근무지 기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20대) 유입 전략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의 학점 연계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 등 청년 세대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기술 융합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등 20대의 현실적인 필요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 등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참여 동기를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역사, 과학기술, 건축 등 남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직장, 학교 동문회 등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군별·성별 맞춤형 접근은 문화교육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가치 중심 브랜딩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문화교육이 취미, 교양, 여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키워드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교육의 본질인 사회적 기능과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브랜딩을 추진해야 한다. 홍보 메시지를 ‘시민 역량 성장’, ‘공동체 기여’, ‘사회적 대화 플랫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학습’ 등으로 전환하여, 문화교육이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학습의 장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확인된 ‘사회적 관심→심층적 성찰→참여 동기 부여’로 이어지는 서사를 마케팅의 핵심 스토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교육에의 참여가 개인의 비판적인 인식과 능동적인 행위성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브랜딩 전략은 문화교육을 기능 습득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과 공공성 실현의 핵심 기제로 포지셔닝하여, 시민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의지를 학습 과정으로 유인하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셋째, 시민들의 평생학습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와 이에 따른 커리큘럼을 설계해야 한다. 문화적 행위성 증진을 위한 학습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교육 종료 후 발생하는 네트워크 단절을 극복하고,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학습 공동체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료자 간의 후속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과정을 일방적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문화 실험장(Cultural Lab)’ 모델로 전환하여 문화적 행위성을 직접적으로 발현시키는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강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공동체의 촉진자(Facilitator)로 재정의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기(탐색과 성장), 중년기(성찰과 확장), 노년기(나눔과 통합) 등 각 생애주기가 당면한 발달 과업과 사회적인 역할과 연계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교육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삶의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하고 평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갖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참여자를 발굴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품질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세미나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자가 동시에 학습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시간적 제약이 큰 직장인, 지리적으로 소외된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계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문화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 정책의 질적 기준을 높이고,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및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단기 공모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진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단계에 맞춰 청년기(성장), 중년기(확장), 노년기(나눔)의 발달 과업에 연계된 장기적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 교육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참여자의 문화 행위성 수준 변화’, ‘네트워크의 지속성’, ‘지역 내 자율적 실천 증진’ 등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는 정책이 시민의 주체적 역량 강화와 공공적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정책의 질적 기준을 격상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2) 질적 조사 결과 분석

인터뷰 분석은 문화교육 참여의 동기, 만족도 및 경험, 사회적 영향, 그리고 향후 발전 과제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분석에서 드러난 수치적 경향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문화교육이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1) 문화교육 참여 동기 분석

인터뷰 분석 결과, 문화교육 참여의 주요 동기는 여가나 취미 활동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 및 개인적 성장과 자아실현이라는 상호보완적인 다층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문화교육을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적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은 문화교육이 공동체에의 소속감과 사회적인 연대감 회복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참여자는 “육아를 하다보니 고립되는 느낌이 강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 된 강좌를 통해 지역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문화교육이 파편화된 사회에서 개인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진술은 설문조사 결과 중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율(65.6%)’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와 일치하며, 개인적인 성장의 동기가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문화교육은 참여 동기의 충족을 넘어 문화적 시민성을 확장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고 있었다. 문화교육 기획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시민이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이자 주체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한 기획자는 “프로그램 설계가 참여자 수와 같은 단기성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문화의 생산자이자 주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시민의 주체적 역량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교육 참여 동기는 자기표현의 욕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참여 동기가 공동체 인식 향상이라는 태도 변화(설문 문항 D1-D3 참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교육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함의한다.

2) 문화교육의 사회적 영향과 내면화 과정

문화교육 참여 경험은 개인의 인식적·정서적 변화를 넘어,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는 문화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가치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문화교육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회 현상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진술했다. 예를 들어,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식 변화를 설명했다. “예전에는 정책이 수립되면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 목표 그리고 수혜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게 됐다.” 이 진술은 정책 및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질문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그리고 이는 문화교육이 참여자들의 비판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학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문화교육에서 학습된 내용을 일상생활 및 사회적 실천 영역으로 전이하고 확장했다. 다수의 응답에서 “환경 관련 교육 이후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구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발생했다”, “하는지도 몰랐던 마을 축제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천적인 변화는 문화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 활동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한 설문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이는 문화교육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문화교육이 개인의 내면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실천으로의 전이와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 매개 변수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문화교육은 참여자들이 사회적인 현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일상생활과 공동체 활동에서의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문화적 촉매로 기능한다.

이미 문화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개인의 비판적인 의식을 실천적인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학습-실천 연계의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문화교육이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증진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3) 향후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인터뷰에 참여한 문화교육 기획자와 문화도시 활동가들은 현재 문화교육 시스템의 지속성 부재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성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종료 후에 네트워크 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 기획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학습한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의 부재가 아쉽다”고 진술하며 이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현장 진술은 참여자들이 문화교육을 지속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향후 참여 희망 분야로 ‘지역문화 및 공동체 활동’(45.4%)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교육 참여자들이 학습된 내용을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일회성 프로그램 중심 운영 체계에서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지속적 학습 공동체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들 또한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사진의 전문성 불균형, 지역별 문화자원과 인프라의 격차, 단년도 예산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불안정성 등이 핵심적 문제로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료 이후에도 학습자·기획자·강사 간의 교류를 유지하는 후속 커뮤니티 시스템이 필요하며, 온라인 기반 플랫폼 및 지역별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안정성과 민간의 혁신성을 결합한 협력적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 문화재단, 시민단체, 민간 기획자의 상호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참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참여자 공동 기획·프로젝트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문화 실험장 (lab)’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 공모사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해야 하며, 질적 평가 기준(참여자 성장, 네트워크 지속성 등) 도입해야 한다.

3. 문화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 발현 양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은 문화적 지식의 습득이나 예술 향유의 차원을 넘어, 자기표현·공동체 실천·비판적 성찰이 통합된 복합적 역량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이는 문화시민이 도시의 문화적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로 해석된다.

첫째, 문화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인의 문화적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타자 수용성’ 항목이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터뷰에서도 “다른 세대나 직업군의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며 관점이 넓어졌다”는 응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교육이 개인의 미적 감수성을 넘어 ‘문화적 상호 이해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민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의미 체계로 재구성하는 문화적 해석자(cultural interpreter)로 성장하고 있었다.

둘째, 시민들은 문화교육을 통해 획득한 감수성과 표현 능력을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였다.

설문에서 73%가 “지역문화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뷰에서도 “배운 내용을 지역축제, 환경캠페인, 주민 모임 등에 적용했다”는 진술이 반복되었다. 이는 문화시민이 문화적 실천의 주체이자 사회적 변화를 기획하는 행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문화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수행하며, 문화적 실천이 공공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는 문화교육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 거버넌스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문화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은 비판적 사고력과 문화 행위성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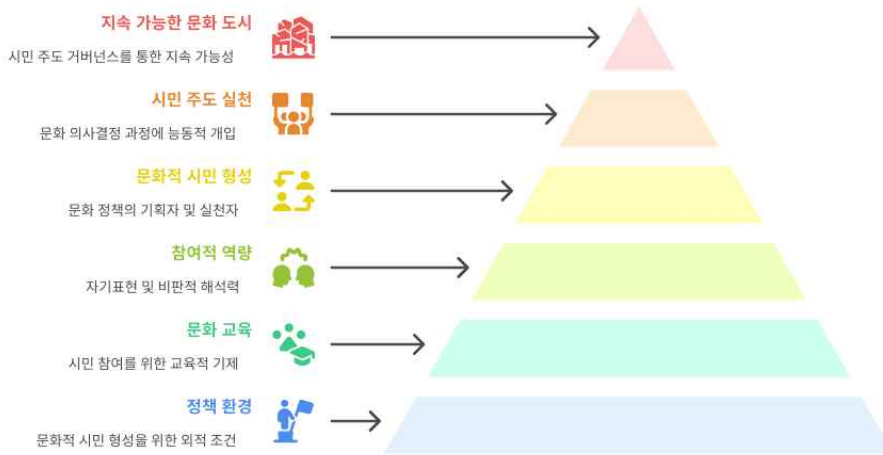
설문 항목 ‘문화정책이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되었다’의 결과는 시민들이 수용자에서 벗어나 정책과 제도를 성찰하는 비판적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에서도 “이전에는 정책을 그냥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성은 시민이 문화정책의 피동적 대상이 아닌, 스스로 정책 환경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문화 정치적 행위자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시민의 문화 역량은 문화적 감수성이나 표현력의 향상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7] 문화적 시민 역량 피라미드

문화적 시민 역량 피라미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문화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은 ‘인식적 차원(문화 감수성 및 타자 이해)’, ‘실천적 차원(자율적 기획 및 공동체 실천)’, ‘정치적 차원(비판적 사고 및 문화 행위성)’으로 구조화된다. 그리고 이 세 요소는 상호 순환적으로 작용하며, 문화 교육의 질과 경험의 지속성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문화시민의 문화 역량은 문화도시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정책적 구조의 하드웨어보다 교육과 실천의 질적 경험에 의해 더욱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문화시민이 문화 활동의 참여자를 넘어 문화적 실천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방향 또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참여적 문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도시 정책 내에서 문화교육을 부수적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성 형성의 핵심 축으로 재구조화하고, 시민이 스스로 기획·운영·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문화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학습과 실천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하며, 단기적 사업 성과보다 시민의 문화적 역량, 네트워크 지속성, 지역 내 자율적 실천 수준 등을 평가 지표로 삼는 질적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요컨대, 문화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은 개인의 인식 변화→공동체 실천→사회적 행위성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를 지니며, 이러한 역량이야말로 문화도시의 본질적 성격을 구현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성패는 하드웨어적 개발보다 문화시민을 형성하는 문화 교육의 질과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도시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손예령. (2019).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33(2), 137-166.
- Bianchini, F., & Parkinson, M.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최종철, Trans.). 새물결. (원저 1979년 출판)
- Jenkins, H., Clinton, K., Purushotma, R., Robison, A. J., & Weigel, M.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IT Press.
- Landry, C. (2005). 『창조 도시』(임상오, Trans.). 해남. (원저 2000년 출판)
- Stevenson, N. (2003). Cultural Citizenship: Cosmopolitan Questions. Open University Press.

참여적 문화 역량 측정을 위한 설문지

'참여적 문화 역량'은 문화교육을 통해 시민이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본 설문은 문화시민의 참여적 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은 문화교육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7개 문항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성실한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응답자 특성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그 외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직업	① 전문직(의료인, 법조인, 교사, 교수,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등)			
		② 사무종사자(공무원, 일반 회사 사무직, 관리업무 등)			
		③ 생산직(제조업, 농어업 등 1, 2차 산업 종사자 등)			
		④ 서비스종사자(상점, 영업, 운수업, 요식업 등)			
		⑤ 단순 노무 종사자(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⑥ 자영업			
		⑦ 전업주부			
⑧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⑨ 무직					
귀하는 지난 5년간 문화교육 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이란? 문화예술 기술의 습득이나 감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 자기 표현력, 공동체적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행위 (예: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된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① 있다	② 없다(설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참여 동기

A1. 나는 사회적 관심 때문에 문화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A2. 문화교육은 내가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A3.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B. 문화적 감수성

B1. 문화교육 참여 이후에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B2.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증가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B3. 예술이나 문화적 표현을 이전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C. 자기 표현력

C1. 나의 생각과 감정을 문화적 방식(글,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C2. 문화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나만의 창작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C3. 공개적인 자리(포럼, 행사 등)에서 나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 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D. 공동체 인식

D1. 문화교육 참여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D2. 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활동을 기획하거나 실천한 경험이 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D3.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E. 타자 수용성

E1. 다양한 연령,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교육에 참여하며 상호 존중을 배웠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E2.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E3. 문화적 차이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F. 비판적 사고 역량

F1.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태도가 생겼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F2. 문화정책이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F3. 문화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일상이나 사회참여에 적용하고자 한다. ()

- | | |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지 않다 | ④ 보통이다 | ⑤ 약간 그렇다 | ⑥ 그렇다 | ⑦ 매우 그렇다 |
|-------------|----------|-------------|--------|----------|-------|----------|

F4. 문화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자유, 평등, 참여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	----------	-------------	--------	----------	-------	----------

G. 기타

G1. 귀하가 참여한 문화교육 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문화예술 창작·감상 프로그램
- ② 지역 공동체 활동
- ③ 도시재생 관련 교육
-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

G2. 귀하가 참여한 교육 운영 기관은 어디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공공기관(예: 지자체, 문화재단 등)
- ② 민간기관(예: 문화단체, NGO 등)
- ③ 학교 또는 대학

G3. 귀하가 참여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	-------	----------	------	---------	------	---------

G4. 교육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 내용
- ② 강사진 전문성
- ③ 운영 방식(홍보, 일정, 장소 등)
- ④ 참여 접근성(비용, 시간, 거리 등)

G5.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디지털·미디어 문화
- ② 지역문화 및 공동체 활동
- ③ 역사·인문학 관련 교육
- ④ 도시재생·생활문화 프로그램

인문도시의 주체와 시선, 발터 벤야민의 산책자(散策者)

김창수(문학평론가, 인하대 초빙교수)

1. 머리말
2. 산책자의 탄생
3. 근대도시 여는 열쇠로서 산책자, 파사젠베르크
4. 보들레르, 근대도시의 시적 철학자
5. 예술작품에 나타난 산책자
6. 한국문학에 수용된 산책자
7. 산책자의 죽음
8. 현재적 의미

제1장 머리말

벤야민(W. Benjamin, 1892-1940)은 20세기 초 유럽 근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사유한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예이론가이다. 그는 베를린의 유대계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나 문학, 철학, 미학을 폭넓게 공부하였으며, 초기에는 낭만주의 미학과 신학적 사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아도르노와 브레히트, 초현실주의, 유대 신비주의, 그리고 신매체 예술에 관심을 확장하며, 근대 도시의 감각적·사회적 변화를 탐구하였다.

벤야민에게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근대적 삶의 조건이자 사유의 무대였다. 그는 파리를 ‘근대의 수도’라 부르며, 아케이드(파사주)와 군중, 광고, 패션 등 도시의 일상적 풍경 속에서 자본주의 문화의 구조를 분석하였다.¹⁾ 이러한 연구는 미완의 대작 《파사젠베르크》(Passagen-Werk)²⁾ 집약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산책자(flâneur)’는 근대 도시인의 익명성과 감각적 파편화를 상징한다.

벤야민은 도시를 통해 기억과 역사, 감각과 상품,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사유했고, ‘파편’, ‘몽타주’, ‘기억의 장소’ 등의 개념으로 근대적 경험의 구조를 드러냈다. 나치의 박해로 프랑스 파리에서 스페인 국경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중 1940년 생을 마감

1) 마르크스의 『자본Das Kapital』(1867)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시 연구를 통한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는 아케이드 프로젝트로 도시공간과 풍경, 거리의 파사주를 시각적 감각적으로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의 물신주의를 비판했다.

2) 영어권에서는 ‘아케이드 프로젝트(The Arcades Project)’라고 번역한다.

했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비롯한 현대 인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

그의 도시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 도시인문학의 이론적 기초자로 평가할 수 있다. 벤야민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기억과 감각, 욕망과 이미지가 교차하는 인문적 공간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인의 존재 조건과 문화적 감수성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제2장 산책자의 탄생

산책자(Flâneur)는 철학자 벤야민이 '구성한' 새로운 관찰 주체이다. '산책자'는 근대 도시의 풍경 속에서 유유히 거리를 거닐며 관찰하는 구경꾼이며 방랑자이다. 그는 "집을 떠나도 어디건 집처럼 편안히 여기는, 수처작주(隨處作主)하는 존재이다. 그는 도시의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관찰하면서 자본주의 근대성과 도시문화의 본질을 탐색하는 자이다. 그는 또 군중 속의 익명인으로서 도시 공간을 탐색하는 관찰자이자 비판적 사유자이다. 벤야민이 구성한 산책자는 도시의 관찰자이자, 근대성의 증언자이며, 파편화된 이미지의 해석자이며, 기억의 소환자라는 점에서 가장 입체적인 도시 풍경의 탐구자라 할 수 있겠다. 현대인들이 풍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체로 이 '산책자'에 가깝다.

벤야민이 '산책자(Flâneur)'라는 개념을 고안한 이유는 단순히 '도시를 거니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대 도시 속에서 인간의 인식과 감각,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파리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대도시화가 결합된 공간이었다. 도시의 거리는 상품 진열창, 광고, 군중, 철도, 전등 등 감각적 자극이 넘쳐나는 근대의 실험실이 되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파리의 거리에서 새로운 인간형, 즉 '도시 속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며 감각적으로 세계를 읽는 인간'을 발견한 것이다. 그 주체가 '산책자'였다.

벤야민은 이 산책자의 형상을 샤를 보들레르의 시세계에서 발견하였다. 보들레르에게 예술가는 군중 속을 유유히 거니는 낯선 자이며, 현대의 감각적 혼란을 시로 표현하는 존재였다. 『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 중 「거리의 군중(Les Foules)」과 같은 작품에 나타나는 시적 주인공이다. 벤야민은 산책자를 근대적 예술가이자 철학적 탐구자로 해석하였다.

그에게 산책자는 근대 도시의 감각의 변화, 즉 빠른 속도, 광고의 빛, 군중의 익명

3) 도시인문학의 중요한 텍스트로는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Le città invisibili, 1972)』도 있다. 이 소설은 20세기 문학의 대표적 실험적 작품 중 하나로, 여행가 마르코 폴로와 황제 쿠빌라이 칸의 대화 형식을 통해 '도시'라는 주제를 시적이고 철학적으로 탐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보르헤스의 『상상도시』와 같은 포스트모던 철학과 문학으로 연결되며, 언어·지식·존재의 불확실성을 탐구한다. 일련의 도시인문학적 성과들은 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총체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성이 만들어내는 파편적 체험을 몸으로 겪는 존재이다. 따라서 산책자는 근대 자본주의의 풍경 속에서 인간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드러내는 철학적 인물이다.

□산책-사유-글쓰기: 벤야민이 대도시 거리를 산책하는 방법을 처음 배운 것은 파리다. 그에게 '산책기술'을 전수해준 인물은 벤야민과 함께 프루스트를 번역한 프란츠 헤겔이었다. 벤야민은 1925년 파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글쓰기에 적합한 형식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가 '걸으면서 생각하기'라는 사유법을 택하게 된 곳, 파리는 이미 산책자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다. (윤미애, 17)

■ 산책자의 모델들

○ 벤야민의 '산책자(Flâneur)' 개념은 특정 실제 인물을 모델로 삼아 탄생했다기보다는, 19세기 파리의 사회적 유형(Social Type)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벤야민이 산책자의 본질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감을 얻은 인물은 바로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였다.

○ 산책자의 문학적 모델, 보들레르의 시적 주인공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시와 산문에서 산책자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악의 꽃》과 《파리의 우울》과 같은 작품들에서 보들레르는 군중 속을 배회하며 도시의 충격적인 풍경, 매춘부, 불량자, 그리고 광고를 관찰하는 시적 자아를 자주 묘사했습니다. 이 시적 자아는 벤야민이 정의한 산책자의 거의 모든 특성을 갖춘 존재들이다.

○ 산책자의 예술가적 모델

보들레르가 '현대성의 화가(Le Peintre de la vie moderne)'로 콩스탕탱 기(Constantin Guys)를 주목하고 이 화가를 다룬 에세이에서, 도시의 순간적이고 덧없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예술가로서의 '산책자'적 태도를 찬양했다. 벤야민은 이 에세이를 산책자 개념의 원형으로 보았다. (벤야민->보들레르->콩스탕탱 기)

○ 지식인, 보헤미안, 아케이드의 단골 고객

벤야민이 '산책자'의 속성을 재구성하면서 19세기 파리의 지식인이나 보헤미안, 아케이드의 고객들도 참조항이었다.

19세기 파리의 지식인과 보헤미안:19세기 중반, 파리의 지식인이나 예술가 중에는 생계나 직업적 목적 없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글감을 찾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상업화되는 도시를 체험하는 방식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으려 했다.

아케이드의 단골 손님:유리 지붕 아래에서 상품을 '구경'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던 아케이드의 단골 손님들도 초기 소비주의를 체험하는 산책자의 한 형태였다. 그들은 소비하는 부르주아 계층의 일부였지만, 그 소비 행위에서 비생산적인 '배회'의 요소를

찾았다.

○벤야민의 '산책자'는 보들레르라는 예술가의 모습과 19세기 파리 부르주아 계층의 도시 생활 방식을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근대성 속에서 소외와 환상을 비판적으로 포착하는 주체를 개념화한 것이다. (시인+미술가+부르주아+소요철학자)

제3장 근대도시 여는 열쇠로서 '산책자'

19세기 파리는 근대의 심장부였다. 산업화, 자본주의, 도시 재개발이 맞물리며 인간의 삶과 감각이 급격히 변하던 시기였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이 새로운 도시 속을 거니는 주체인 '산책자'(Flâneur)를 통해 근대적 경험의 본질을 읽어내는 열쇠를 찾았다.

산책자는 단순히 거리를 걷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군중과 거리를 유지하는 관찰자이다. 바쁜 행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 건물의 그림자, 상점 진열창의 빛을 바라보는 그는 도시의 리듬과 욕망을 읽어내는 감각적 철학자이다. 벤야민은 산책자를 “거리를 자신의 거주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표현했다⁴⁾. 이 한 문장은 그가 도시를 단순한 생활의 무대가 아니라 사유의 장으로 본 시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산책자는 소외된 관찰자로 도시의 거울이다. 산책자는 군중 속을 자유롭게 배회하지만, 언제나 국외자로 머문다. 그는 도시의 삶을 체험하기보다는 응시한다. 벤야민에게 산책자는 자본주의 도시에서 탄생한 새로운 인간형이다. 사람들은 일터로 향하거나 소비를 위해 거리를 오가지만, 산책자는 그 흐름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는 “자본의 거리에서 자본을 응시하는 자”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성찰한다. 파리의 유리 아케이드를 걷는 산책자는 상품 진열창을 바라보며 매혹과 허무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그 빛나는 상품들 속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환상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책자는 이 소비의 풍경을 통해 근대의 허구적 유토피아, 즉 물질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믿음의 허상을 본다.

산책자는 기억의 탐험가, 시간의 여행자이다. 산책자의 시선은 단지 현재의 소비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도시의 골목, 낡은 건물, 폐허가 된 공간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낸다. 벤야민에게 도시는 기억의 집합체이며, 산책자는 그 기억을 읽어내는 탐험가다. 그는 “거리의 표면 아래에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⁵⁾.

4)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The Arcades Project), 〈M〉단편 중. “산책자는 거리를 자신의 거실로 삼는다.”

5) 같은 책, 〈도시의 잔향〉 관련 단락. “거리의 표면 아래에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잠들어 있다.”

그 ‘잠든 도시’는 역사와 개인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다. 산책자는 그 속을 거닐며 잊힌 시간을 복원하고, 근대의 속도와 망각에 저항한다.

■ 파사젠베르크(Das Passagen-Werk)

벤야민이 <파사젠베르크(Das Passagen-Werk)>에서 제시한 ‘산책자(Flâneur)’ 개념은 근대 도시의 익명성과 감각의 파편화를 상징하는 핵심 주제이다. 그의 방대한 노트 중 ‘M-단락(M Konvolut, “Der Flâneur”)’에 산책자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책자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음으로써, 세계 속의 자신을 인식한다.”

(Das Passagen-Werk, J79,3 요지)

존재의 탈중심화, 산책자는 군중 속에서 이름(아이덴티티)을 잃고, 익명으로 존재한다. 벤야민 자신도 망명자, 유대인, 비정규 지식인으로서 자기 소멸의 경계선에 놓인 존재였다. 그는 스스로를 도시의 흐름에 흡수시킴으로써, “자아의 동일성”을 해체하고 존재의 비실체성(non-substantiality)을 체험했다. 이때 산책자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감각과 사물, 타인과 얽힌 ‘흐름 속의 존재’가 됩니다.

“산책자는 사회의 거울이다. 그는 거리의 움직임(교통, 왕래)에 그토록 몰입해 있어서, 결국 자신이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⁶⁾

플라뇌르를 ‘군중 속의 관찰자’로 규정하면서, 근대 도시에서 개인과 대중이 서로를 반사하는 관계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도시의 군중은 그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된다.

“거리(street)는 산책자에게 그의 거실이 된다. 열린 하늘 아래의 공간은 그에게 시민이 자신의 네 벽 안을 아는 것만큼이나 익숙하다.”⁷⁾

산책자가 도시의 거리를 하나의 거주 공간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에게 거리는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가 이루어지는 “생활의 무대”이다. 도시공간과 개인의 내면이 뒤섞이는 순간이다.

6) “Der Flâneur ist der Spiegel der Gesellschaft. Er ist so sehr am Verkehr interessiert, dass er für das Publikum selbst zum Objekt des Interesses wird.” – *Das Passagen-Werk*, Konvolut M1,1

7) “Die Straße wird für den Flâneur zu seiner Wohnung; unter freiem Himmel ist sie ihm ebenso vertraut wie dem Bürger sein vier Wände.” – *Das Passagen-Werk*, M5,2

산책자 안에서 우리는 상품 속에 피난처를 찾는 지식인을 본다. 그는 한때 책 속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백화점의 인물이 된다.”⁸⁾

벤야민은 산책자를 자본주의 상품 세계 속의 지식인으로 규정한다. 그는 더 이상 서재의 철학자가 아니라, 진열창 앞에서 세계를 사유하는 지식인이다. 즉 ‘지성의 장소’가 책에서 도시의 파사주로 이동한 것이다.

제4장 보들레르, 근대 도시의 시적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미완의 대작 《파사젠베르크》(Das Passagen-Werk)에서 가장 깊이 천착한 인물은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였다. 벤야민에게 보들레르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근대 도시의 감각을 사유한 철학적 시인, 곧 “근대성(modernité)의 시적 성과를 이룬 존재였다.

보들레르가 19세기 대표적 산책자 시인이 된 것은 그가 파리의 풍경을 묘사해서가 아니라 거리를 걷다가 떠오르는 즉흥적 사상과 낱말을 사색했기 때문이다. (윤미애.17) 보들레르는 파리의 거리를 유랑하는 ‘플라뇌르’(flâneur)의 시적 형상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로 제시된다. 그는 군중 속을 거닐며 낯선 타인의 얼굴, 상품의 진열창, 가스등 아래의 그림자들을 바라보는 도시의 관찰자이자 기록자이다.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시적 주인공인 산책자는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는 자이다.”(Das Passagen-Werk, J79.3)고 말했다. 이때 ‘플라뇌르’는 단순한 유희적 관찰자가 아니라, 근대의 감각 구조를 통찰하는 예술가적 주체이다.

보들레르가 살았던 19세기 중엽의 파리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중심지, 그리고 군중과 상품, 광고와 교통이 얽힌 감각적 실험실이었다. 벤야민은 이 도시를 “근대의 수도”라 부르며, 그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간형인 산책자(flâneur)를 보들레르의 시 속에서 발견했다. 산책자는 도시의 거리를 유유히 걸으며 군중 속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자, 동시에 자본주의적 일상의 표면에서 근대적 삶의 진실을 읽어내는 감각의 철학자이다. 그는 거리를 자신의 ‘거실’로 삼고, 진열창 앞의 사물들을 통해 시대의 욕망과 환상을 해석한다.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시에 흐르는 ‘충격(shock)’의 미학에 주목했다. 근대 도시의 속도와 소음, 광고와 기계의 반복이 인간의 감각을 분절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 충격을 예술적 형식으로 전환하여, 감각의 붕괴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것이 벤야민이 말한 “감각의 정치학”이다.

또한 벤야민은 보들레르가 즐겨 사용한 ‘알레고리(allegory)’를 통해 근대의 비극적

8) “Im Flâneur erkennt man den Intellektuellen, der in der Ware seine Zuflucht sucht. Er wird zu einer Gestalt des Warenhauses, wie er früher eine des Buches war.” - *Das Passagen-Werk*, M16a.3

진실을 해석한다. 알레고리는 사라짐, 폐허, 죽음의 흔적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시적 장치로, 자본주의 사회의 사물화와 시간의 잔해를 비추는 눈이다. 보들레르의 시는 찬란한 상품의 표면 아래 잠재한 사멸과 허무의 감각을 드러낸다.

보들레르가 말한 '근대성(modernité)'은 덧없음과 영원의 결합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간 속에서도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시대정신의 긴장이다. 벤야민은 이 정의를 받아들여, 근대 예술과 도시경험을 시간의 이중 구조 속에서 이해했다.

벤야민에게 보들레르는 “근대 도시의 시적 철학자”이다. 그는 군중 속에서 소외와 욕망, 충격과 기억을 동시에 체험한 인물이며, 그 시적 감수성은 벤야민의 도시인문학적 사유를 이끄는 근원적 원천이 되었다. 《파사젠베르크》의 ‘보들레르 장’은 근대 도시의 철학이 어떻게 시를 통해 사유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장면이다.

제5장 예술 작품에 나타난 산책자

보들레르의 작품 「군중」, 「낮선 사람」, 「지나가는 여인에게」은 산책자의 심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이외에도 관찰자적 시선, 시각의 거리감을 드러낸 「창문」〈Les Fenêtres〉, 『Les Fleurs du Mal』, 도시의 상실과 기억을 묘사한 「백조」Le Cygne, 『Les Fleurs du Mal』, 도시의 그림자, 근대적 욕망을 드러낸 「저녁의 황혼」Le Crépuscule du soir, 『Les Fleurs du Mal』/ 예술가의 감각적 전유를 표현한 「그림 그리고 싶은 욕망」Le Désir de peindre, 『Le Spleen de Paris』 등의 작품에서 산책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벤야민은 콩스탕팅 기의 미술작품에서도 산책자를 발견했다.

● 산책자의 '익명성'과 '정체성 유동성'

“다중으로 목욕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군중을 즐기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 거니와, 인류의 신세를 지며 생명력의 잔치를 질펀하게 벌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요정이 그의 요람에 찾아와 가장과 가면의 취미, 불박이 삶에 대한 증오와 여행에 대한 정열을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시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는 이 비할데 없는 특권을 즐긴다. 저 육체를 찾아 헤매는 흔들처럼 그는 마음 내킬때마다 어느 사람이건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

— 「군중 Les Foules」, 『파리의 우울』 황현산역

산책자가 군중 속으로 잠입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산책자는 군중을 에너지와 생명의 원천(une orgie de vitalité)으로 보지만,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 즉 '변장'과 '가면'을 쓰는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공감능력을 소유자이다. 벤야민에게 산책자는 19세기 자본주의 도시에서 자기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하며 타인의 경험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주체다. 내재적 접근법처럼. 산책자의 '주거에 대한 혐오'는 그가 사적인 실내(Intérieur)를 거부하고 도시의 거리를 자신의 진짜 거주 공간으로 삼은 자유인임을 보여준다.

● 근원적 소외감과 자유인

- 수수께끼 같은 사람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누구냐, 말해보라.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누이, 네 아우? : 나에겐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형제도 없어요.
 - 네 친구들은? : 당신은 이날까지도 나에게 아직 그 의미가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는 말을 쓰시는군요.
 - 네 조국은? : 그게 어느 위도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미인은? : 그야 기꺼이 사랑하겠지요, 불멸의 여신이라면.
 - 황금은? : 당신이 신을 증오했듯 나는 황금을 증옉니다.
 - 그래! 그럼 자네는 대관절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별난 이방인가?: 나는 구름을 사랑하지요. 흘러가는 구름들을... 저기... 저...진기한 구름들을!
- 「이방인 L'Étranger」, 『과리의 우울』 (황현산역)

'낯선 사람(L'Étranger)'인 산책자는 가족, 친구, 조국, 부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물질적 유대를 거부한다.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것은 '지나가는 구름(les nuages qui passent)'이다. 이는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산책자의 삶을 반영하며, 동시에 근대 도시의 덧없음(ephemeral), 즉 영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산책자의 정신을 상징한다.⁹⁾ 벤야민에게 이 낯선 사람은 자본주의적 유대에 포섭되지 않은 채 도시를 배회하는 비판적 의식의 은유인 셈이다.

● 찰나와 영원의 변증법

- 거리는 나를 둘러싸고 귀가 멍멍하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갓춘 상복, 장중한 고통에 싸여 후리후리하고 날씬한 여인이 지나갔다. 화사한 한쪽 손으로 꽃무늬 주름 장식 치맛자락을 살포시 들어 흔들며,
- ...
- 한 줄기 번갯불... 그러고는 어둠! -그 눈길로 홀연 나를 되살렸던, 종적없는 미인이여, 영원에서 밖에는 나는 그대를 다시 보지 못하련가? 저 세상에서, 아득히 먼! 너무 늦게! 아마도 영영!
- 「지나가는 여인에게」 「À une passante」 『악의 꽃』 (황현산역)

만남은 한줄기 섬광처럼 찰나에 일어나고 곧 '밤(la nuit)'처럼 사라진다. 순간적인 것(fugitive)속에서 화자는 영원(l'éternité)의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벤야민은 이 여인이 근대성의 덧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이며, 찰나의 만남은 과거의 잠재성이 현재의 위기와 충돌하여 진실을 드러내는 변증법적 이미지의 순간으로 본다. 산책자는 이 찰나를 포착하여 근대적 경험의 본질을 기록한다.

9) “근대성(modernité)은 덧없음과 영원의 결합이다.” Das Passagen-Werk, J59.1)

● 미술 작품-콩스탕탱 기의 경우



Constantin Guys, Vanité(vers 1875-1885),
Washington, The Phillips Collection.

콩스탕탱 기(Constantin Guys)의 《Vanité(허영/Vanity Fair)》(1875-1885년경)는 19세기 후반 파리 상류사회의 사교 생활과 패션을 포착한 그의 대표적인 드로잉 중 하나이다. 산책자(Flâneur)의 관찰하는 시선으로 도시의 군중 속으로 침투하여 인물들의 순간적인 포즈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사교장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전달한다. 작품 제목 'Vanité'는 '허영' 또는 '덧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시 상류층의 화려하지만 피상적인 사교 모임이나 공원의 산책 장면을 보여준다. 작품은 대개 최신 유행의 의상을 입은 여성들과 그녀들을 에워싼 신사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제6장 한국문학에 나타난 산책자

1. 소설

산책자는 우리 곁에도 있다. 쇼핑몰을 천천히 거닐며 진열된 상품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보는 사람, 혹은 카페 창가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묵묵히 관찰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현대의 산책자들이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속도의 세계를 거부하고, 의미를 복원하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도시가 더 이상 사색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광고의 공간으로 변했음에도, 산책자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삶의 단서를 찾아낸다.

한국문학사에서는 박태원의 대표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의 주인공 '구보'는 한국 근대문학에서 벤야민적 의미의 '산책자(Flâneur)'로 해석할 수 있다. 구보는

하루 동안 서울(경성)의 거리, 종로, 명동, 청계천, 다방, 전차 등을 목적 없이 거니는 인물이다. 이 소설은 작가의 분신인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서 새벽 2시까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의 산책자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건에 매이지 않고,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을 관찰하며 내면의 사색에 잠긴다. 박태원은 구보의 시선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풍경-카페 문화, 신문, 영화, 서양식 복장, 일본어 간판-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주의가 아니라, 근대 도시의 감각적 충격과 낯섬을 포착하려는 미학적 시도이며, 벤야민의 ‘근대의 체험(Erlebnis)’ 개념과 깊이 통한다. 박태원은 이 소설을 통해 경성 풍물에 대한 세밀하고 정치한 묘사를 추구한다. 이러한 현실 묘사를 박태원은 ‘모데로 노로지오-考現學’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10)

박태원의 『천변풍경(1936)』 역시 ‘산책자(Flâneur)’적 시선과 미학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개인 산책자의 내면적 시선이라면, 『천변풍경』은 도시의 집단적 산책자, 혹은 도시적 카메라의 시선으로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천변풍경』의 무대는 1930년대 경성의 청계천 일대이다. 박태원은 이곳을 중심으로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인물들의 일상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거리의 구두닦이, 기생, 학생, 상인, 빈민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작가는 이들을 따라가듯 천천히 걷는 시선, 즉 산책자의 관찰 시점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소년(창수-필자주)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쓰 입은 민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욕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애가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박태원 『천변풍경』 ‘제3절 시골서 온 아이’

소설의 구성은 마치 도시를 산책하며 본 단편적 장면의 연속처럼 되어 있다. 각 장(章)은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 “다리 밑의 구두닦이”, “청계천변의 아이들” 등 서로 다른 시공간의 풍경들이 느슨하게 이어지며, 이는 벤야민이 말한 몽타주(montage)구조와 유사하다. 『천변풍경』의 인물들은 이름 대신 직업이나 위치로만 제시된다. 이들은 군중 속의 익명적 존재이며, 서로 교차하지만 중심이 없다. 이는 도시 군중의 비인격화를 드러내며, 동시에 산책자가 바라보는 군중의 파편화된 이미지를 반영한다. 벤야민이 파리의 군중 속에서 발견한 근대인의 고독, 소외, 익명성이 박태원의 청계천 거리에서도 반복되는 셈이다.

10) 김창수. 「소설의 시점과 거리」, 『이미지의 영토』 (2012, 푸른사상). 341쪽.

2. 수필, 인천의 산책자들

○ 정암, 「인천지형의 곡선미」, 『월미』 창간호, 백미사, 1937.

인천의 지세는 여성적이다. 광대(廣大)치 않고 세장(細長)하며 험고(險高)는 못되나 굴곡이 많은 도로가 복잡부정연연(復雜不整然)한 품이 과도기적 여성과 흡사한 데가 있다. 서편으로 뻗친 족부(足部) 항정(港町)은 경인복선을 피하는 인천역과 중만(中滿)무역의 야심을 가진 축항이 있는 곳이다. 발목격인 해안정(海岸町)에는 운송업 무역업자들이 종종거름을 치고 화방정(花房町) 만석정(萬石町)들 종아리에는 통통한 재벌공장들이 들여백였고 미생정(彌生町) 중정(仲町)은 장판지처럼 살이 핑핑한 모양이요, 산근정(山根町), 산수정(山手町) 일대는 마치 살찐 엉덩이 모양으로 문화주택이 두둑하게 솟아있다. 제하(臍下) 삼촌(三寸)은 본정(本町), 신정(新町), 궁정(宮町)들로서 정족형으로 모였는데 본정통 미두장의 매력은 천하 활냥이 출입하는 터이요, 인천의 진고개라는 궁정통은 인천 전체의 호기심을 모조리 모은 곳이라 전등 밝은 쇼윈도가 즐비하다. 서경정(西京町)과 경정(京町)은 인천의 북부요 용강정(龍岡町), 용운정(龍雲町), 울목정(栗木町)은 흥부인 듯 유방의 비밀같은 도색미기(桃色美妓)와 붉은 심장 같은 이곳의 자원가(資源家)와 단젓을 흡취하는 상인천역이 있다. (하략) -정암, 「인천지형의 곡선미」, 『월미』 창간호, 백미사, 1937.

□ ‘이도령’, 「인천의 모던 만평(漫評)」, 『월미』 창간호, 백미사, 1937.

나 : “그렇지만 모던이라기에는 너무도 작은 건물들일세.”

“모르는 소리 말게. 모던이란 원래 큰 것 위대한 것은 아닐세. 적고 아담스런 것이라야 더욱 의미가 바로 맞지.”

나: “그러면 인천 전체가 우선 모던이랄 수도 있겠네 그려.”

“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나 다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천에 모던이 없어.”

나: “자네가 나를 놀리려고 여기 데리고 온 모양일세 그려.”

“천만에 소리야. 그렇다면 다시 말함세. 인천에서 제법 양복을 맞도록 지여주는 집은 <백양테라> <복음양복점> <인천양복점> <스마트양복점>들이 모던양복점이고 구두는 <동창양화점> <인천양화점> <삼성태양화점>이 일등이요, 모던 옷을 파는 포목점으로 <태풍상회> <금룡상점> <주봉기포목점>이 우수하고 양품잡화는 <화신연쇄점>을 칠 수밖에. 궁정서 부사옥이란오 씨의 경영법도 그럴 듯한데 좀더 노력이 부족하지.”

나 : “이 사람이. 노력은 말도 말게. 조선사람 장사꾼 속에 참으로 노력하는 상점이 몇 군데나 있던가? 젊은 사람이면 놀러나가고 나이 지긋하면 맥이 풀려 앉아있고 무엇 때문에 가게를 벌였는지 까닭을 모르겠데.” - 「인천의 모던 만평(漫評)」, 『월미』 창간호, 백미사, 1937.

3. 현대시, 이가림, 「2만5천볼트의 사랑」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2만5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인천행 지하철에 흔들릴 때마다/2만5천볼트의 사랑과/2만5천볼트의 고독이/언제나 내안에 안개처럼/넘실거리기 때문이다

징그러운 발을 감추고/ 안보이는 한쌍의 촉각을 세운 채/ 음습한 곳에 묻혀사는 벌레들을/ 마구 잡아먹는/ 한 마리 길다란 지네//그 꿈틀거리는 몸뚱어리 마디마디/환히 불 밝힌 방 안에서/학생 공원 선생 군인 회사원/창녀 수녀 신문팔이 소매치기/이 땅의 눈물겨운 살붙이들 모두가/서로 뺨을 맞대고/서로 어깨를 비벼대고/서로 밀치고/서로 부추기고/서로 껴안으며/즐거운 지옥의 밧줄에 묶여 끌려간다// 이리 부딪치고 저리 쓰러지는/그 장삼이사의 물결 속에/ 몸을 던져/나 또한 즐거이 자맥질한다//

너의 살결에/ 나의 살결이 닿고/너의 숨결에/나의 숨결이 섞이는/황홀한 세상//거대한 군중의 파도가/물거품의 자취조차 없이나의 파도를 삼킨다.

-이가림, 「2만5천볼트의 사랑」

이 작품은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는 화자의 돌발적 고백으로 시작된다. 그렇다고 이 표현을 역설이나 반어로 볼 필요는 없다. 도시의 산책자라면 매혹적인 거리와 문명의 이동수단, 그리고 거대한 도시의 군중을 낫설어 하지도 거부하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들레르가 『빠리의 우울』에서 시인이란 군중(multitude)와 고독(solitude)을 등가로 파악할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이 작품에서 열차의 지붕 위로 흐르는 ‘2만 5천볼트’ 고압전류를 2만5천볼트의 사랑과 고독으로 병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대립과 모순적 정서는 지하철이 이동하는 군중의 광장인 동시에 방(밀폐 공간)이라는 모순의 공간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이동하는 광장의 군중들이 일으키는 파도와 ‘즐거이 자맥질하며’ 교감한다. 이같은 교감 속에서 ‘나’의 사랑과 고독의 수치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전압인 2만5천 볼트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지하철은 음습한 지하에서 벌레들(인간)을 먹이로 살아가는 징그러운 지네이다. 그런데 지하철은 징그러운 몸통 속에는 불을 환하게 밝힌 방이 있다. 지하의 서식자들인 군중들은 ‘지네’의 몸통 속에 하나로 ‘버무려져’ 서로의 몸 냄새를 뒤섞기도 하면서 ‘황홀하게’ 살아간다. ‘눈물겨운 이땅의 피붙이들’이 ‘이리 부딪치고 저리 쓰러지는 군중의 물결’ 그것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이면서 생생한 인간의 숨결이다. 군중의 파도와 숨결 속에서 산책자도 함께 뒤섞여 보들레르처럼 ‘영혼의 거룩한 매음’(황홀감)을 체험한다. 도시와 지하철을 지옥으로 비유하지만, 그 지옥에서 인간의 냄새와 교감의 고리를 찾아내 형상화한 사례는 희귀하다. 비시적 상황을 전복시킨 시인의 상상력이 철도와 도시를 노래한 작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텍스트를 탄생시킨 것이다.

제7장 산책자의 몰락과 추방

벤야민은 산책자를 19세기 자본주의의 꽃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존재가 근대 도시에서 사라졌다고 진단한다. 오스만화의 결과: 오스만의 파리 도시 개조로 거리가 넓고 직선화되면서, 산책자가 누릴 수 있었던 미로 같은 익명성과 은밀한 공간이 파괴되었다. 넓어진 거리는 산책의 즐거움 대신 교통의 효율성을 강요했고, 산책자는 설 자리를 잃었다.

신문의 등장으로 산책자가 수행했던 도시 관찰과 정보 수집의 기능은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의 등장으로 대체되었다. 산책자의 몰락은 자본주의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시간을 표준화, 상품화하는 과정이었음을 상징한다. 벤야민은 산책자라는 '폐허가 된' 주체를 분석함으로써, 19세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현재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환상을 폭로하고자 했다.

■ 파리의 도시 개조와 산책자

○ 오스만식 도시 개조의 '전략적 미학'

- 나폴레옹 3세의 명령을 받은 조르주 외젠 오스만(Baron Haussmann)의 파리 도시 개조(1853~1870)는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하거나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예술적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부르주아 통치 강화:새로 건설된 넓고 긴 대로(Boulevard)는 부르주아 계층의 세속적, 정신적 통치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그들의 기관들을 프레임 안에 배치하는 역할을 했다.

○ 바리케이드 차단과 내전 방지

-혁명 진압: 오스만의 도시 개조는 도시 내전(civil war)에 대한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19세기 파리에서 노동 계층이 거리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바리케이드(barricade)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음.

-넓은 거리: 새로 뚫린 대로의 폭은 시민들이 돌과 가구를 모아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직선화: 새로운 거리는 병영과 노동자 거주 지역 사이에 최단 경로를 제공하여, 정부군(진압군)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노동자 계층 거주지로 접근하여 시위를 진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업을 "전략적 미화(L'embellissement stratégique)"라고 불렀다.

○ 노동 계층의 외곽으로의 추방

- 프롤레타리아트의 교외 이주: 도시 개조로 인해 파리 중심부의 임대료가 상승했고, 이는 노동 계층 인구(프롤레타리아트)를 도시 외곽, 즉 교외(suburbs)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벤야민은 이로 인해 파리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로부터 소외

(alienation)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 결론적으로, 벤야민은 오스만의 도시 개조를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영구히 하고 혁명적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 계획을 동원한 정치적, 군사적 행위로 해석했다. (도심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골목 정비)

제8장 산책자의 의의

'산책자(Flâneur)'의 현재적 의미는 디지털화되고 가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느림', '주의력', '비판적 거리두기'의 가치로 수용될 수 있다. 산책자는 오늘날 소비와 기술에 의해 규정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비판적 모델로 작용한다. 벤야민 시대에 산책자는 산업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속도에 저항하며 도시를 '체험'하는 존재였지만 그 의의는 유용하다.

○ '산책'의 비판적 기능: 느림의 저항

-가속 사회에 대한 저항: 하르트무트 로자(Hartmut Rosa)와 같은 현대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듯,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가속 사회)에서 산책은 생산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시간을 점유하려는 행위이다.

-주의력의 회복: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의해 주의력이 끊임없이 분산되는 환경에서, 산책자는 목적 없이 거리를 관찰하며 깊이 있는 주의력(Attention)을 회복하는 실천적 모델이 된다.

○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산책자'

산책자의 정신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배회자는 현대의 '산책자'로서 인터넷을 서핑하며(Surfing) 하이퍼링크의 미로를 탐험하는 '디지털 산책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은 목적지 없이 정보의 흐름 속을 유영하며, 예측 불가능한 연결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기다린다.

-데이터 속의 익명성: 산책자가 군중 속에서 익명을 즐겼듯이, 디지털 산책자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변형하며 익명성 속의 자유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감시 자본주의의 대상이 된다.

○ 소비와 스펙터클에 대한 비평적 거리

산책자는 19세기 아케이드의 환상(상품 물신)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다.

-스펙터클 비판: 현대 도시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연출하는 스펙터클(화려한 이미지와 광고)에 대해 휩쓸리지 않고, 이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비평적 주체의 역할을 상징한다.

'체험'의 상품화 거부: 산책자는 도시의 체험을 수집했지만, 현대는 모든 체험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위한 상품화된 콘텐츠가 된다. 산책자의 정신은 이러한 체험의 즉각적인 공유와 상품화를 거부하고 순수한 관찰의 가치를 옹호한다.

○ 파편과 몽타주의 미학

벤야민은 도시의 경험을 연속적인 이야기로 보기보다 파편(fragment), 몽타주(montage)로 이해했다. 그는 도시 속 광고, 진열창, 신문, 교통, 군중 등 파편적 이미지들이 근대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본 것이다. 도시인문학에서는 이를 도시 이미지 읽기, 도시의 파편적 기호학으로 수용할 수 있다.

○ 벤야민의 산책자는 오늘날 분주함 속의 사색, 속도 속의 느낌, 소비 속의 관찰을 실천하며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을 진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인문학자들에게 '감각적 도시인문학'을 비롯한 근원적 주제와 방법론을 사유할 수 있게 한다.

- 감각의 도시 인문학(urban sensory humanities),
- 기억과 장소 연구(memory & place studies),
- 도시보행자의 미학(urban flânerie),
- 도시의 파편적 서사(narrative of fragments)

○ 오늘날 도시인문학은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을 계승하여,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걷기·기억·감각의 인문적 장(場)으로 이해한다. 산책자는 곧 도시를 읽는 사람이며, 도시를 통해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로 자리한다.

○ 벤야민에게 산책자는 근대 도시가 낳은 이중적 존재이다. 그는 근대의 산물인 동시에 근대를 성찰하는 자이다. 그는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소비의 유혹 속에서 잃어버린 의미를 찾는다. 결국 산책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근대 인간의 초상이다. 군중 속의 고독, 속도의 세계에서 정지, 소유의 시대 속에서의 응시,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느끼는 존재의 불안과도 맞닿아 있다. 거리 위의 산책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 도시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도시를 읽고 있는가?”

■참고문헌

- 김창수, 『인천의 산책자』, 다인아트. 2005.
김창수, 『인천수필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
윤미애, 『발터 벤야민과 도시 산책자의 사유』, 문학동네.2021.
베르너 폴트 저 이기식 김영옥 역, 『발터 벤야민』, 문학과지성사.1999.
발터 벤야민 지음 반성완 편역,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2003.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1,2, 새물결. 2022.
샤를 보들레르, 황현산 옮김, 『악의 꽃』, 민음사. 2024.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윤영애 옮김, 『파리의 우울』, 민음사.2023.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황현산 옮김, 『파리의 우울』, 문학동네.2024.

■ 주요 인용 작품 원문

1. 군중 (Les Foules)

Il n'est pas donné à chacun de prendre un bain de multitude : jouir de la foule est un art ; et celui-là seul peut faire, aux dépens du genre humain, une orgie de vitalité, dont une fée, dans son enfance, aurait pétri le goût du déguisement et de la masque, le dégoût du domicile et la passion du voyage.

Le poète jouit de cet incomparable privilège, qu'il peut à sa guise être lui-même et autrui. Comme ces âmes errantes qui cherchent un corps, il entre, quand il veut, dans le personnage de chacun.

2. 「낯선 사람 L'Étranger」, 『파리의 우울』

— Qui aimes-tu le mieux, homme énigmatique, dis ? ton père, ta mère, ta sœur ou ton frère ?

— Je n'ai ni père, ni mère, ni sœur, ni frère.

— Tes amis ?

— Vous vous servez là d'une parole dont le sens m'est resté jusqu'à ce jour inconnu.

— Ta patrie ?

— J'ignore sous quelle latitude elle est située.

— La beauté ?

— Je l'aimerais volontiers, déesse et immortelle.

— L'or ?

— Je le hais comme vous haïssez Dieu.

- Eh ! qu'aimes-tu donc, extraordinaire étranger ?
 - J'aime les nuages... les nuages qui passent... là-bas... les merveilleux nuages !

3. 「지나가는 여인에게」 (À une passante) - 『악의 꽃』

La rue assourdissante autour de moi hurlait.
 Longue, mince, en grand deuil, douleur majestueuse,
 Une femme passa, d'une main fastueuse
 Soulevant, balançant le feston et l'ourlet ;
 ...
 Un éclair... puis la nuit ! - Fugitive beauté
 Dont le regard m'a fait soudainement renaître,
 Ne te verrai-je plus que dans l'éternité ?
 Ailleurs, bien loin d'ici ! trop tard ! jamais peut-être !

■ 회화와 사진

한국 근대 회화 속의 '산책자적 시선' (1920~1930년대)은 나혜석의 「파리의 거리」 (1927), 이상범의 경성풍경, 김관호의 <해질녘의 경성> 등이 있다.



나혜석의 <파리의 거리>



김관호 <해질녘의 경성>

사진예술에서는 구본창의 『서울의 골목』, 노순택의 『서울의 얼굴』, 한석현의 『Walking City』 프로젝트에 도시산책자들이 나타나며, 박노해는 사진집 『길위에서』는 민중적 산책자를 통해 노동자의 일상과 거리를 보여주었다. 플라뇌르의 시선은 한국 미술에서 도시의 감각, 시간, 기억, 흔적을 탐구하는 미학으로 계승되고 있다.¹¹⁾